

## 濟州島 女人들의 속옷에 관한 研究

高 富 子\*

### I. 머리 말

本 研究는 濟州島<sup>1)</sup>의 土着 庶民 女性들이 입고 살아 온 속옷 중에서 下衣에 대하여 民俗學的인 方法에 의하여 조사·정리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服飾研究는 1927年 村山智順의 『朝鮮의 服裝』과 1947年 李如星의 『朝鮮服飾考』를 시작으로 하면서 1970年부터 활발히 이루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이 研究의 흐름은 대부분 王室服飾 및 官職者 즉 上流社會의 儀禮的인 服飾研究에 치중된 바 있었으며, 이것들은 三國時代부터 朝鮮朝 末期에 이르기까지 中國대륙과의 對外的인 政勢의 흐름에 따라 받아 들여진 즉 中國服屬化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로 다시 말하면 中國대륙의 服飾을 다룬점이 없지 않은 실정이다.

服飾研究에 있어서는 우선 實物資料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알려진 最古의 자료로는 高麗末 遺物이라고 하는 白紵衣<sup>2)</sup>와 大覺國師의 袈裟<sup>3)</sup>가 있을 뿐, 上古時代나 三國時代의 資料는 全無한 상태이다. 다행히도 朝鮮朝 服飾은 1980年代를 前後하면서부터 京畿·忠清地方을 中心

\* 단국대학교 민속박물관. 복식사, 민속학 전공

1) 이하 本 島라 함.

2) 1973年 발견. 忠南 瑞山 文殊寺 金銅如來座像腹藏遺物. 發願文年代가 忠穆王 2年(1346年)으로 되어 있고, 옷의 형태는 모시로 만든 반소매이며 길이가 길다.

3) 全南 昇州 仙岩寺所藏. 袈裟 뒷면에 「高麗宣宗大王賜于大覺國師北宗元祐二年丁卯」라고 墨書가 되어 있으며, 형태는 二五條四長一短이며 紅色비단에 繡를 놓은 것이다.

으로 都市계획 등에 의한 移葬때에 많이 出土되고 있어 被葬者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도 비교연구로서 비교적 정확한 年代 측정이 가능하게까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出土遺物에 대해서도 被葬者의 屍身에 직접 입혔던 壽衣와 棺에 채워 담았던 補空物이 확실하게 구별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盜掘 또는 무계획적인 移葬으로 後孫이 없거나 墓의 형태를 파악하지 못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事後처리가 곤란한 점과, 계획적인 移葬의 경우라도 예기치 못한 미이라의 出現 등의 이유로 당황하여 무질서한 후처리를 했을 경우 服飾전문가에게 전달되기까지는 현장파악이 거의 어렵게 된 상태가 되고 만다.<sup>4)</sup> 그러나 어쨌던간에 壽衣와 補空物의 區別이 다소 확실치 못하더라도 被葬者의 生存時의 被服이므로 當時의 사회상이라든가 직조기술 문양 형태 등을 파악하는데는 最上의 자료임에 틀림없다. 다만 아쉬운 것은 색상문제이다. 出土때에는 이미 紺色(누런색)으로 변하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出土遺物은 耽陵君<sup>5)</sup>과 清衍郡主<sup>6)</sup> 등 王室유물과 班家中心의 上層계급 사람들의 遺物들로서 일반 庶民服飾의 出土는 없는 실정이다. 물론 庶民服飾의 형태는 韓服의 기본형태로서 平常服 형태를 추리하여 볼 수는 있겠으나 현재까지 出土된 王室이나 班家中心의 유물이 상상의 외 많은 수량<sup>7)</sup>임에 비해 일반 서민의 日常服이나 儀禮服의 수량은 몇 벌이나 됐으며 치수나 섬유는 어느 정도의 제한을 받았는가 등은 확실한 답이 나오질 않는 실정이다.

복식연구의 두번째 資料는 그림이나 陶俑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上代나 三國時代에 대한 遺物資料가 全無한 상황에서는 古墳壁畫<sup>8)</sup>를 통하여 이

4) 筆者가 1979년 이래 다루어온 出土服飾만도 12件에 500여점 달하고 있으나, 미이라와 함께 현장이 보존된 상태는 단 1件 뿐이었다.

5) 全州李氏로 宣祖의 曾孫(1636~1731年). 1981년 京畿道 龍仁出土. 65點出土.

6) 清衍郡主(1754~1821年). 1964 京畿道 廣州 出土. 남편과의 合葬墓에서 부장품 200여점 出土.

7) 솜옷들을 비롯하여 1人當 평균 30~50여 點 정도.

8) 주로 高句麗의 古墳壁畫로 대개 4C~7C에 걸쳐 北韓의 大同江유역과 平壤 부근 鴨綠江 輯安縣 通溝 등에 분포되어 있고, 조사 보고된 것은 약 40餘基 정도이다.

루어지고 있으나 繪畫의 단점은 벽화에 나타난 부분외에 다른 측면의 형태라든지 옷감의 질감이나 속에 입은 옷의 수량이나 형태 등의 파악이 곤란한 점이다.

세번째로 위 두가지를 갖추지 못할 경우 文獻資料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문헌자료 역시 服飾에 관한 단일본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없으며, 조금씩 발췌하여 추리하여 보는 수 밖에 없다. 문헌의 대부분은 기록에 남을 수 있는 대상 즉 王族이나 班家 등 上流계층의 복식 위주이며, 이것 역시 官職의 인원수로 봐서 0.02%에 국한된 복식연구에 불과한 일이다. 또한 이것 역시 當時 服飾 전문인이 아닌 집필자의 식견 여하에 따라 명칭에 혼돈이 온다든지, 시대에 따라 유행하던가, 王朝의 정책의지에 따라 변화하는 일 등 특히 中國대륙 諸국가들의 흥망성쇠에 따른 對外的인 服飾受用 관계 등으로 인하여 服飾의 발생연대나 生成이유 근거 형태 등의 파악에 어려움이 많다.

어쨌든 우리나라 服飾研究가 유물이나 繪畫·文獻을 토대로 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上流社會의 服飾위주였다는 점은 이러한 資料들이 비교적 상층계급의 資料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서라고 본다. 이에 반하여 0.02%를 제외한 庶民服飾의 연구는 빈곤한 자료와 함께 그 값어치를 일찍 깨우치지 못하였으며, 또한 복식연구가의 底邊확대가 부족한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복식연구의 방향은 기후 풍토 생활습관 등을 달리하는 異質文化圈의 土着庶民服飾과 더 나가서는 朝鮮社會에서 中·後期 이후 뿌리 박힌 四色黨派의 宗孫家를 비롯한 地方豪族의 服飾 등이 民俗과 함께 병행 조사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는 現存하는 文獻資料의 조사는 잠시 後學들에게 일임해 놓고 급변하는 세태 속에서 口傳으로 계승되면서 家門代代로 전승되어오던 전통이 단절되어 우리 것을 잃고 있는 현실에서 古老들이 가기 전에 가치없게 여겨지는 庶民의 애환을 모아 기록해둬야 할 의무를 지고 올바른 庶民基層文化의 定立과 그 속에서 전통의 뿌리를 바르게 내리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作業의 一環으로 筆者는 1970年代 이후 本島의 服飾<sup>9)</sup> 및 風俗을 민

9) ·1971 「濟州島 服飾의 民俗學的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

俗學的 측면에서 조사·정리하고 있다.

本 島의 服飾에 대한 文獻자료는 거의 全無한 상태이며, 遺物資料 역시 귀한 실정이다. 이는 本 島가 안고 있는 自然환경적 정치·사회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勞動이 생활의 전부이므로 日常生活服은 勞動服이기 때문에 보존 가치성이 없을 뿐더러 옷한벌이면 그 옷이 낡아서 떨어질 때까지 몇 번이고 꿰매어 입은 뒤에는 아기들의 기저귀나 걸레로 이용됨으로 해서 그 흔적을 남길 것이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特殊儀禮的인 상황 즉, 결혼 때라든지 호상옷(壽衣)을 제의하고는 옷은 단순하게 몸을 감싸고 보호하는 一次的으로 被服의인 기능 외에는 장식이라든지 신분표시 등의 걸치례적인 요소는 전혀 염두에 둘 수가 없었다. 다만 더우면 적게 입고 추우면 끼어 입었으며 간단한 나들이를 할 때는 作業服 위에 겹옷을 덧 입으면 체면치레가 되었다. 本 島에서는 “살아 한번 호사요 죽어 한번 호사”라는 말을 하며 살아왔다. 살아서는 결혼할 때 새로 고운 옷을 입어보니 한번 호사이고, 죽어서는 저승에서 영원토록 입을 호상옷을 입게 되니 죽어서 호사라는 것이다.

다행히도 本 島 女性들의 內衣類는 儀禮的이고 상징적인 겹옷에 비하여 큰 변화를 이르지 않은 채 近來까지 着用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은 古老들의 께속에 가장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호상옷 보따리 속에서나 찾을 수 있는 옷가지들과, 그 옷들과 함께 살아온 경험담과, 先祖들에게서 들었던 口傳들을 통하여 資料를 정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本 稿에서는 本 島 女性들의 內衣類 가운데서도 本 島 特有的인 固有 양식<sup>10)</sup>이라고 볼 수 있는 (물)소중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請求論文.

- 1974『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第五冊(濟州道編)』衣生活,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 1980「濟州島 通過儀禮服의 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 1985「濟州島民의 喪禮에 나타난 服飾」, 一호상옷과 喪服— 濟州島研究 第二輯. 濟州島研究會.
- 1986『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第十七冊(衣生活編)』濟州地方의 衣生活,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0) 筆者는 國內의으로는 1986년도 전국적으로 실시된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第17冊(衣生活編)이라든지,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어떠한 國內外的 연구자료를

## II. 濟州島歷史 概觀과 服飾

本島는 韓半島 제일 남단에 자리잡은 큰 섬으로, 역사는 高·良·夫 三姓神話에서 시작되며(B.C. 65年頃), 文獻 기록상으로는 對內的으로 三國과 5세기 後半부터, 對外的으로는 日本 및 唐과 7세기 中半부터 交流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高麗 때에는 元宗 12年(1271年) 三別抄가 入島하면서 약 1세기간 元의 통치하에 있게 되었다. 朝鮮朝 中期에 와서 仁祖는 濟州 防衛와 貢納 등의 이유로 島民의 出陸禁止令<sup>11)</sup>을 내리니 약 2세기간(1629年~1830年) 島民은 죽지 못해 섬에 갇혀 사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더우기 婦女子의 出陸을 철저히 禁하였으며 出產하여 人口를 증가시키고 貢布와 軍布를 織造하여 軍用과 各 司에 貢納토록 하였고, 男丁들은 軍役과 賦役을 강요당하였다. “쇠로도 환성 못 혼진 제주 여자로 환성 혼다”는 本島 女人들의 말에서 그들이 겪어 온 生活苦를 짐작할 수가 있다.

이런 사건들은 古代 自治國으로서의 耽羅國이 三國 이후 韓半島의 政勢에 따라 對內外的으로 二重 간섭을 받게 되었고, 더우기 仁祖가 내린 出陸禁止令은 文化交流의 단절을 가져왔으며 이로 일하여 경제적인 빈곤과 문화적인 落後性을 招來하고 말았다.

그러나 元의 통치 1세기와 仁祖의 出陸禁止 이후 2세기 동안 濟州의 風俗 및 服飾에는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으니 이는 현재 남아 있는 蒙古의 遺風이라든지, 本土와는 다른 濟州固有의 生活樣式을 지키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外部와의 단결과 감당키 어려운 貢納의 의무에서 生存키 위한 댓가로 勞動이 生活化해야 하였으며, 勞動에 합당한 服飾의 창안과 개발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勞動服으로 질기고 실용적인 갈옷과, 바

통하여서도 본 도의 갈옷이나 (물)소중이류에 대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물소중이에 대해서는 본 도에서 해녀가 차지했던 경제적인 기여도나 해녀 인구 등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이 점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

11) 仁祖實錄 卷二十一, 七年己巳八月.

濟州居民流移陸邑三邑軍額減縮備局請 禁島民之出入 上從之

다에서 潛水에 필요한 활동적이고 능률적인 海女옷인 물소중이의 출현은 필연적인 所産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노동복들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직도 많은 연구과제를 남기고 있다.

本島의 服飾이 近來에 와서 변화한 과정을 살펴보면, 朝鮮王朝가 망하기 시작하는 日帝 植民治下에서 한차례 서서히 변화를 시작하면서 國內的으로 6·25사변으로 인하여 갑자기 밀려온 陸地部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동경하면서 同化되기 시작하는 가운데 國外的으로는 新興宗教의 활동이 활발하여지고 교통 통신의 빠른 媒介와 함께 西洋化의 流入 등 분별없이 받아들여진 外來要素들이 함께 섞이면서 本島的인 것들이 崩壞되기 시작하고 어느 사이인가 習俗·조화를 이루면서 定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48년에 發生한 濟州民亂인 四·三事件때 많은 遺物들이 擲失되고 住民들의 居住地 이동으로 인하여 地域間的 特殊性도 사라지면서 生活樣式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本島 服飾의 傳統性이나 本島的인 것들은 1950年代를 前後하는 시기에 대부분이 마무리 짓게 된다.

### Ⅲ. 內衣類(下衣類)

內衣란 外衣에 대응하는 말로 겉옷(表衣)이 外出이나 儀禮·職位의 표시 수단 체면치레의 외부치장이나 신분과시의 형식적인 要素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內衣는 防寒·防暑 등 필수적인 피부보호나 外衣의 외곽선을 표현하기 위한 기능 등으로 着用되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內衣의 엄격한 의미의 분류가 애매하게 나타나고 있다. 內衣가 단순한 겉옷에 대응하는 것이라면 表衣와 內衣 사이에 입게되는 중간 內衣 즉, 속옷의 한계가 애매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속살에 닿는 여성들의 下衣를 다리속곳이니 속속곳이라고 하고, 그 보다 겉쪽으로 입는 옷을 속곳 고쟁이 바지 단속곳 등으로 통칭되고 있다. 本稿에서는 편의상 제일 겉에 입는 表衣인 치마를 제외한 속옷류를 內衣類라 하였으며, 각기 本島 고유의 명사(방언)로 表記하

였다.

## 1. 군(군)서답

月經帶를 말한다. 사람에 따라 ‘군서답’ ‘군서답’ ‘죽은서답’ ‘바대’ 등으로 부르고 있다. 군서답·죽은서답은 부피가 다른 큰 빨래거리에 비해 작다는 ‘小’를 의미하며, 군서답은 고운빨래거리로, 바대는 받치는 것이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으며 모두 隱語로 통하고 있다. 특히 군서답 즉 고운빨래라고 美化시키는 것은 월경대가 더럽고 냄새나며 보기 흉하다는 기분에서 소홀히 간수하거나 생리현상을 하찮게 여기면 “해구지 당한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女性이 갖추어야 할 품성을 일깨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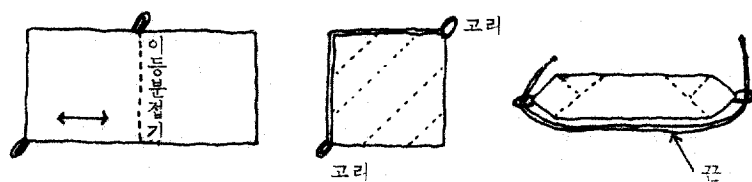
### (1) 재 료

本島에서 織造한 土綿(木綿:무명)을 주로 사용하였다. 삼베나 모시를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는 특히 여름에는 촉감이 시원해서 좋고 피 때가 잘 빠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포나 모시는 무명에 비하여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잔 土綿을 주로 사용하였다. 여유있고 호사하는 집에서는 陸木(陸地部에서 잔 수입품으로 울이 곱고 부드럽다)으로 하기도 하였으며, 가장 좋은 것은 ‘청목(靑木:淸木)’<sup>12)</sup>이었으나 서민들은 말만 들었다 한다. 청목으로 만든 것은 색이 청색이기 때문에 피가 묻어도 얼른 눈에 거슬리지 않을 뿐더러 옷감이 얇고 부드러워 촉감도 좋은 것이었다.

### (2) 형 태

삼베나 무명 폭 너비의 2배 길이로 잘라서 접어 만든다. 두겹을 겹치고 엇선(정바이어스) 되게 길이로 잡고 양쪽에서 2번씩 접으면 中央 부분은 10겹으로 겹쳐져서 두겹이 되며 水分(피) 흡수를 하기 좋게 된다. 뽕죽한 양쪽에 고리를 달고 긴끈을 마련하여 고리 사이에 끼우고 찬다.

12) 이는 중국 淸나라 産으로 靑色이며 울이 곱고 촉감이 좋은 木綿제품이다. 本島 女性들이 결혼할 때 청목(淸木)치매(치마)를 시댁에서 해주면 소문이 날 정도로 最上의 것이었다.



〈그림 1〉 조서담 접는 순서

그러나, 이것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1회용 패드나 시령목으로 마련하는 월경대를 쓰는 것처럼 충분한 量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대부분 하루에 한번 갈아 차거나 또는 量이 적은 사람은 1~2개로 1회 끝날 때까지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短産하거나 피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一生동안 임신한 상태가 많았으므로 월경대를 자주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건으로 마련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헌옷을 송덩송덩 누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量이 적은 사람은 아예 준비하지 않고도 一生을 보낸 경우도 있었다. 또한 다행한 것은 감물들인 갈굴중이를 日常生活服이자 勞動服으로 입었으므로 감물 바랜 색상이 벽돌처럼 붉기 때문 월경피가 묻어도 얼른 눈에 나타나지 않아서 매우 합리적이고도 실용적이었다. 또 소중이가 여유 있는 사람은 두벌씩 끼어 입기도 하였다.

## 2. 소중이

소중이(또는 소중기)는 本島 女性들이 가장 속에 입는 下衣로 陸地部 女인들이 말하는 ‘다리속곳’ 또는 ‘속속곳’에 해당하는 지금의 ‘팬티’ 前身이다. 소중이는 작은 옷을 의미하는 小와, 홑옷이라는 중이를 합쳐 붙여진 이름으로 본다.

### (1) 재 료

대부분이 제주에서 織造한 무명으로 만들어 입었으나 여름에 입는 것은 삼베로, 겨울에는 무명을 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廣木을 많이 쓰게 되었다. 베로 만든 베소중이는 통풍이 잘되고 촉감이 시원하고 몸에 달라 붙지 않아 땀을 뽀뽀 때가 잘 빠지기 때문에 여름철에 많이 입었으며, 월경기간 중



에도 배소중이를 입으면 피 때가 잘빠져서 많이 입었다. 해방후 廣木이 흔하여 많이 보급이 되고 길쌈을 그만 두면서부터는 삼베나 무명보다 廣木을 많이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 (2) 특 징

### ① 貴賤을 가려 입었던 옷이다.

本島에서는 農·山村을 “兩村”이라 하여 높은 신분으로 우대를 받았으며, 바닷가 마을은 “浦村”이라 하면서 漁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개촌(포촌) 사람들”이라고 하여 賤視<sup>13)</sup>하였으므로 두 지역 사이에는 婚事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大小事에 合席할 경우에도 兩村사람들은 東班계열로 윗자리를 잡고 남은 자리 그것도 兩村사람들과는 등급을 낮게 하는 아랫자리라야 浦村사람들이 겨우 자리잡았었다. 이런 男性사회에서의 上下尊卑 개념은 女性도 마찬가지 현상으로 여성들이 입는 속옷에도 나타나고 있었다. 浦村 女性들이 소중이類를 입는 대신 兩村 女性들은 陸地部 女性들 처럼 속곳이나 고장중이(육지부의 고쟁이)와 굴중이(육지부의 단속곳)를 입었다. 그러나 李氏王朝가 망하고 차츰 계급차별이 약화되면서 부터는 兩村 婦女子들도 소중이를 입기 시작하였다.<sup>14)</sup> 그러다가 섬유가 많이 생산되고 현대에 와서 메리야스 제품의 팬티의 공급이 대중화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서부터 차차 어른들도 입기 시작하였다. 筆者가 조사 다니는 중에 호상옷에는 반드시 소중이를 마련한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현재 입고 있는 메리야스 팬티가 편리한 것같아도 老人들은 옛날에 입던 소중이가 훨씬 좋았으며 지금도 다시 소중이를 입기 시작하고 있고 더 오래 살면 소중이를 만들어서 입겠다고 하면서 소중이의 復古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과거의 소중이를 입고 생활했던 때와 요즘에 와서 메리야스 팬티를 입어 본 결과 그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과거의 소중이가 훨씬 좋다는 의견이다. 그 중에서는 소중이는 현대식 팬티에 비해 기

13) 바닷가의 여성들에게는 특히 해녀들을 총칭하여 “뽕재기” “갯뽕재기”라고 하면서 賤視하였는가 하면, 결혼한 뒤 어른의 칭호를 붙이는데도 兩村여성에게는 “○○방”이라고 앞에 地名을 넣고 방이라고 높히는데 반하여, 바닷가 여성들에게는 “○○침”이라하여 낮춰 부르기도 하였다.

14) p. 94 6. 속옷 着用的 實例 참조.

능 활동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위생적인 점, 특히 여름철 땀이 났을 때 요즘 옷은 몸에 달라 붙고 덥지만 베로 만든 소중이를 입으면 몸에 저항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독자적인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② 제작과정이 간편한 옷이다.<sup>15)</sup>

무명이나 삼베의 폭을 그냥 살리고 접기만 하면 직선으로 재단되어 간단하게 마름질이 되며, 체형에 따라서 치수의 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누구든지 기술이 없어도 쉽게 自作하여 입을 수 있다.

③ 활동반경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활동적인 옷이다.

밀바대가 180도로 수평이 되면서 두점이 되고 엇선 폭으로 되어 있어서 다리 운동의 활동범위를 최대한 살릴 수 있다.

④ 실용적이고 위생적이며 견고한 옷이다.

신체적으로 増減이 생겼을 때나 妊娠하였을 때에도 허리끈이나 옆선에 달린 끈으로 조절되므로 실용적이다. 또한 밀바대쪽이 두점으로 되어 있고 바대의 부위가 넓기 때문에 분비물의 흡착성이 좋으며 180도 직선이며 엇선이므로 피부에 닿지 않아 좋다. 또한 이음선이나 활동력이 심한 部位에는 힘바대(사진 7.8 참조)를 덧대어 견고한 바느질을 하기 때문에 옷이 낡아서 떨어질 때까지 거이 손을 댈 필요가 없이 단단하게 바느질하며 한쪽 허벅지가랑이쪽의 단추나 끈만 풀면 옷 전체를 벗어 내리지 않아도 用便을 편리하게 볼 수 있게 고안된 옷이다.

⑤ 守節이나 貞操를 지키기에 알맞은 閉鎖的인 옷이다.

갑작스런 접탈을 당하거나 몸을 허락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몸을 보호하는데 적합한 옷이다. 과거에는 早婚하여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했을 때는 대부분이 시댁식구들(주로 시누이 방)과 같이 거처하였다. 이런 환경에서 남편이 부인에게 접근했을 때 소중이를 입고 있으면 위기를 면할 수가 있었으며, 심한 경우에는 소중이를 두벌씩 입기도 하는데 소중이가 가랑이가 터진 쪽을 엇바꿔 입으면 어떤 경우라도 몸을 지킬 수가 있었다. 또한 애기

15) p.90 소중이 제작방법(마르기) 및 p.97~99. 4. 물소중이 제작방법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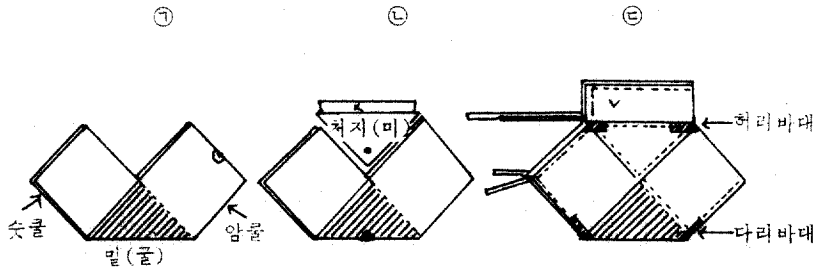
터울이 잦거나 월경중일 때 몸의 허락을 피하는 신호로도 이용하였다.

### (3) 제작방법

#### ① 마르기



#### ② 만들기



〈그림 2〉 소중이 마르기(접는 순서)와 만들기 및 각 部位 명칭

무명이나 삼베의 통폭을 길게 놓고 體型에 따른 알맞은 너비를 잡는다. 살이 찼거나 妊娠婦는 넓게 잡는 편이 좋다.

### 3. 고장중이(고쟁이)

여자들이 입었던 바지와 같으나 홀으로 되어 있으며, 주로 여름철用이다. 本 島에서는 소중이나 (속)속곳 위에 입었다.

#### (1) 재 료

고쟁이는 주로 여름에 입는 것이었으므로 삼베나 모시로 하였으나, 봄 가을에는 무명이나 明紬로 하였다. 차츰 廣木이 흔하여지면서 廣木을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

#### (2) 형 태

부리가 좁고 폭이 넓으며 밑가랑이가 터져 있다. 밑이 터져 있으나 포개는 부분(바대)이 있고, 폭이 넓기 때문에 발을 벌리고 앉아도 밑이 벌어지지

않는다. 허리는 옆쪽으로 터서 허리끈을 다는데 대부분이 앞쪽끈은 길게 하여 허리 한바퀴를 돌려서 앞으로 맨다. 바지통은 배래선이 曲線으로 되어 있으며, 부리 끝에는 “도리서곰바느질”<sup>16)</sup>로 치장하는데 이는 고장중이의 견고성과 美的 감각을 살리기 위함이다. 특히 이 바느질은 기술과 솜씨를 자랑하게 되므로 정성을 들여 단을 감쳤다.

그러나 고장중이는 보통 일반 庶民女性들에게는 日常生活服化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주로 고장중이는 儀禮나 정장차림의 외출 때나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近來에 와서 속옷의 간소화로 겹바지나 고쟁이 중에서 계절에 따라 한가지만 입고 그 위에 속치마를 입고 겹에는 치마를 입고 있다.

#### 4. 바 지

바지에는 겨울철용에는 솜을 넣어 만든 솜바지, 봄·가을용으로는 겹으로 만든 겹바지와 잘게 누빈 누비바지가 있다.

##### (1) 형 태

고장중이와 같은 형태이다.

##### (2) 재 료

평상시 입을 옷으로는 주로 무명이나 광목으로 만들지만 결혼 때나 호상옷(壽衣)일 때는 明紬로 한다. 특히 결혼 때는 반드시 솜을 넣은 솜바지를 만들어 입는데 이는 거죽과 안 사이에 솜을 돔으로써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도 목적이 있긴 하지만, 보다 더 큰 의미는 부부간에 따뜻하게 사랑하면서 백년해로를 하라는 뜻이며, 또 시집살이도 숨처럼 포근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데 있었다. 그러나 겹바지나 누비바지는 결혼 때나 호상옷으로는 철저히 禁忌하고 있으니 이는 안과 밖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나 자손들의 앞길이 막혀서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呪術的인

16) 부리 끝에 가늘게 단을 대고 곱게 박고 다시 접어 밖으로 보이는 線이 가늘고 통통하며 고르게 하고 안쪽으로 들어간 시접을 한울씩 떼서 곱게 처리한 바느질 법.

관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바지 역시 고장중이와 마찬가지로 日常服化하지 못하였다. 솜바지는 목화 생산에도 문제<sup>17)</sup>가 있었지만 따뜻한 기후 조건이나 기타 경제사정에서 노인용이거나 특수의례용으로 준비되는 정도였다.

## 5. 굴중이(단속곳)

本島 女性들이 입었던 下衣類 가운데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어 그 용도나 활용범위로 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반 서민 여성들의 日常服이자 勞動服으로 주로 着用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여성의 中間內衣가 本島에서는 外衣化한 대표적인 옷으로, 작업 때는 작업복으로서의 外衣로 집안에 있을 때는 의례적인 치마를 대신하여 입는 外衣로 입었기 때문에 內衣보다는 外衣인 관념이 큰 옷이다. 그러나 內衣를 外衣化하여 작업복으로 사용하는 例는 경기도 안성지방의 조사<sup>18)</sup>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니 ‘일을 할 때는 한 쪽이 3폭씩 되는 속곳을 입었고 그 부리는 남자 바지의 대넒처럼 검은 형걸 끈으로 묶었다’고 하여 지방에 따라 노동복으로 代用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속곳은 일반가정의 부녀자들은 집안에 있을 때는 치마 대신 입고 생활하였다는 陸地部 古老들의 口傳을 통하여 조사된 바<sup>19)</sup> 있다. 그러나 本島에서와 같이 완전히 勞動服化한 걸옷으로 입는 경우는 없었다.

### (1) 재 료

平常時 正裝用의 中間 內衣로 입거나 특수 의례용으로 입을 것은 주로 明紬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여름에는 모시나 삼베로, 겨울에는 무명이나 廣木으로 한다. 노동복으로서 外衣로 사용되는 것은 무명이나 광목으로 만

17) 本島에서는 솜생산이 귀해서 혼인 때에도 솜이불을 마련하고 가지 못했으며 밭에서 목화재배를 한 것은 무명을 찢서 옷감을 쓰거나 하는 정도 뿐이었다. 또한 농사지을 땅이 부족했기 때문에 良質의 토지에서는 곡식을 생산하여야만 식량을 얻을 수가 있었으므로 목화 생산이 매우 귀했다.

18)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第17冊(衣生活編), p. 280.

19) 筆者가 1985~6년 경북지방과 충청지방 강원지방의 民俗調査에서 확인되고 있음.

들고 감물을 들인 갈굴중이로 하여 입었다.

## (2) 형 태

(단)속곳과 같다.

바지통이 직선이면서 폭이 넓고 밑이 막힌 홑옷으로 陸地部 婦女子들이 입는 속곳이나 단속곳에 해당한다. 그러나 本 島에서는 속곳과 단속곳의 二重용도를 기능상 하나로 통합한 單一용도와 單一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속곳과 단속곳의 二重着用은 일반 서민 여성들에게는 특수 의례 즉 결혼이나 호상옷을 제의하고는 日常時에는 거의 사용이 아니 되고 있는데 이는 옷의 기능상 편리하기 때문에 勞動服化한 것이다.

## (3) 갈굴중이의 外衣化

굴중이에 감물을 들인 것을 갈굴중이라고 부르는데, 갈굴중이는 농부나 일반서민 여성들에게 平常服이면서 勞動服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었기 때문에 內衣보다는 外衣化한 대표적인 옷이 되고 있다.

길이는 발목과 정강이 중간 정도이며 무릎밑에서 끈(짚이나 노끈 또는 풀줄기 등)으로 매고 大小便을 볼 때는 넓은 바지 가랑이 한쪽을 치켜 올려 이용된다. 차츰 해방전후 後代에 오면서 실용적인 外衣로 하면서 옷감을 절약하여 바지통을 좁게 만들고 허리 끈을 앞과 뒤쪽에 각각 분리시켜 2箇씩 달고 허리끈을 맬 때는 앞의 끈을 먼저 매고 뒤쪽 끈은 나중에 매었다가 大小便을 볼 때는 뒷쪽 끈만 풀고 이용하였다. 또한 감물을 들였기 때문에 붉은 색상(오래동안 입어서 남아지면 흙색으로 변한다)이 나쁘므로 월경대의 준비가 충분치 못했던 경우나 불규칙적인 월경시에도 흰옷에 비해 훨씬 편하였기 때문에 감물을 들여 입는 갈옷의 여러가지 장점과 일손이 바쁘고 심한 노동을 해야하므로 경제성 위생상 등의 조건에 합당한 노동복으로 필수 불가결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옷은 日帝 때 勞動服으로 개발된 몸빼가 보급된 다음부터는 굴중이에 비해 옷감이 적게 들고 간편한 점으로 인해 몸 빼에 밀려나게 되었다.

## 6. 속옷 着用의 實例

다음은 現存한 古老들이 결혼 때 입었던 속옷의 着用 實例를 조사한 것이다.

- ① 고복님. 1902年生, 16세 결혼, 제주시 건입동  
소중이→굴중이→솜바지→치마 2벌
- ② 김유두. 1904年生, 18세 결혼, 남제주군 성산읍 오조리  
소중이→고장중이→굴중이→치마 2벌
- ③ 고정생. 1907年生, 16세 결혼, 제주시 오라 1동  
소중이→굴중이→솜바지→치마 2벌
- ④ 정만연. 1910年生, 17세 결혼, 남제주군 성산읍 신흥리  
소중이→고장중이→솜바지→굴중이→치마 2벌
- ⑤ 한신생. 1911年生, 21세 결혼, 남제주군 성산읍 신흥리  
고장중이→솜바지→굴중이→치마 2벌
- ⑥ 문신생. 1911年生, 17세 결혼, 제주시 오라 2동  
소중이→솜바지→굴중이→치마 2벌
- ⑦ 현경봉. 1911年生, 20세 결혼, 서귀포시  
소중이→굴중이→솜바지→치마 2벌
- ⑧ 양기순. 1913年生, 17세 결혼, 서귀포시  
굴중이→솜바지→치마
- ⑨ 김순생. 1913年生, 22세 결혼, 북제주군 조천면  
소중이→속굴중이(속곳)→솜바지→굴중이(단속곳)→치마 2벌
- ⑩ 홍구인. 1914年生, 18세 결혼, 제주시 1도 2동  
소중이→속굴중이→솜바지→단중이(굴중이)→치마 2벌
- ⑪ 홍남봉. 1914年生, 18세 결혼, 제주시 용담동  
소중이→속굴중이→고장중이→솜바지→굴중이→치마 2벌
- ⑫ 현길춘. 1915年生, 18세 결혼, 서귀포시  
소중이→솜바지→고장중이→속치마→치마 2벌
- ⑬ 진향례. 1916年生, 17세 결혼,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  
소중이→솜바지→치마 2벌
- ⑭ 허숙자. 1922年生, 17세 결혼, 제주시 오라 2동  
소중이→솜바지→굴중이→치마 2벌
- ⑮ 김두희. 1923年生, 20세 결혼, 북제주군 한림읍  
소중이→솜바지→속치마→치마 2벌

〈表 1〉 內衣類 입는 순서 및 종류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6 단계	7 단계
옷  종  류	소중이 (13명)	숨바지 (7명)	숨바지 (6명)	굴중이 (1명)	단속곳 (1명)	치 마 (5명)	치 마 (1명)
	굴중이 (1명)	고장중이 (2명)	고장중이 (2명)	단중이 (1명)	치 마 (11명)		
	고장중이 (1명)	속굴중이 (3명)	굴중이 (5명)	숨바지 (1명)			
		굴중이 (3명)	속치마 (1명)	속치마 (1명)			
			치 마 (1명)	치 마 (10명)			
	15명	15명	15명	14명	12명	5명	1명

위 표를 유형별로 나누면 완전한 內衣類에 속하는 것은 1단계에서 4단계에 속하며, 4단계에서는 內·外衣類가 混用되고 있으며, 겉옷류는 5단계에서 7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貧富의 형편에 따라 內衣類는 2벌에서 5벌까지 차등있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위 표는 특수사례 즉, 결혼 때 입었던 예이기 때문에 평상시 여인들의 內衣로는 볼 수 없으며, 平常 나들이용으로는 3벌정도, 노동할 때는 1~2벌을 입어 왔다.

#### Ⅳ. 물소중이

물소중이는 물옷·잠녀옷이라고도 하며 海女들이 바닷물 속에서 미역이나 소라 등 해산물을 채취할 때 입는 作業服이었다. 물소중이의 발생은 內衣보다는 外衣로 사용하기 위함이 먼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이 옷이 살에 직접 닿는 가장 속에 입는 기능으로 보면 內衣의인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보다는 潜水作業 때에 表面에 노출되는 겉옷으로 입는 작업복이기 때문에 外衣의인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중이와 형태가 같기 때문에 海女들에게는 작업복으로서의 물소중이는 日常服으로서의 內衣가 作業 때에는 作業服으로서의 外衣化하는 二重기능을 겸비하고 있는 실정인



었다.

### 1. 재 료

주로 무명을 사용하였으나, 廣木이 많이 보급되기 시작하자 광목에 검정 물을 들여서 만들었다.

### 2. 형 태

소중이와 같은 형태이나 소중이 보다는 작업복이기 때문에 좀더 견고하게 만들며, 가슴을 감싸야 하므로 허리 위의 길이를 길게 하면서 작업 때에 벗 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깨에 끈을 달았다.

### 3. 發生要因

口傳에 의하면 倭寇들이 食糧이나 물건들을 약탈하러 해변가 마을에 나타나서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 그 가운데서도 바다에서 작업하고 있는 해녀들이 겁탈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 정조를 지키기 위하여 고안해 낸 옷이 현재의 해녀복까지 발달시켰다고 하나, 문헌기록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倭寇의 해안선 침해와 약탈이 高麗末부터 시작되었는데 朝鮮朝 初期에는 高內와 明月에 침입하여 방화·약탈하였으며<sup>20)</sup> 이후에도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하자 행정 책임자인 牧使나 判官을 통하여 강력한 倭寇대책을 세우기 시작하였는데, 中宗五年에는 張琳이 濟州牧使로 부임하여 濟州防禦를 위한 조급한 시책 때문에 島民의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여 民心을 잃고 부임 6個月만에 罷免 당하는 일까지 있었다.<sup>21)</sup>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海女들이 倭寇의 겁탈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수한 옷이 고안되어졌을 것이고 작업의 능률과 실용성 섬유생산 미관적인관점 등을 감안하면서 차츰 近來의 해녀복 형태까지 보완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海女の 潛水 상황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 중에서도 賤한 것은 미역을 캐는

20) 太宗實錄. 四年 四月 참조.

21) 中宗實錄. 五年 참조.

여자를 潛女라고 하는데 미역을 캐 때는 발가벗은 알몸으로 海汀을 遍滿하여 낚을 가지고 바다를 떠다니면서 바다 밑에 있는 미역을 끌어올리는데”<sup>22)</sup>라고 하였다. 당시의 상황에서 海女들이 알몸으로 潛水 작업을 하였다면 어느 정도의 알몸인지 즉 전혀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는지 아니면 儒敎社會의 사회적 인습에서 볼 때 內衣만 입은 상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當時의 경제적 섬유생산 및 직조기술의 발달 등으로 봐서 완전 알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이는 海女들의 작업은 대부분 마을과 떨어진 바닷물 속에서 이루어지며, 당시 衣料生産이 충분치 못한 실정<sup>23)</sup> 등을 감안하면 바닷물 속에서 작업하는데까지 옷을 입었을 경우는 극히 희박하다고 본다. 이러한 여러가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물소중이의 발생요인은 외부의 침해로부터의 자기보호 즉 정조를 지키기 위한 요인으로, 또한 차츰 구체적인 生業수단으로 인하여 작업 인원이 많아지면서 수치관념에서 치부를 가리는 수단으로라든지, 또는 衣料生産이 풍족하여지면서 체면치레의 수단이나 신체보호수단 등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발생 연대는 朝鮮朝 後期로 보아야할 것이다.

#### 4. 제작방법

만드는 법이 쉽기 때문에 누구든지 필요로 하는 대로 만들어 입었다. 바쁜 계절이면 물질(潛水) 하다가 나와서 몸을 녹이고 쉬는 사이에 잠깐씩 만들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부분 海女들은 자신이 自作하여 입었는데, 이는 이웃은 전고성과 작업시 능률적이고 편리함이 우선이므로 자신의 體形이나 動作 범위에 알맞게 前에 입었던 옷의 결점을 보완하면서 제작하였으므로 他人에게 맡기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이었기 때문이다.

##### (1) 만드는 순서

마름질 하는 법은 앞(表 1)의 소중이와 같으며, 이는 1982年 변순아(女. 당시 47세)氏에 의해 조사된 것이다. 변氏는 海女 가운데서도 上級에 속하는

22) 1628. 「濟州風土記」. 李健.

23) 「南溟小乘」. 島人貧殘無衣者多穿緒席簑衣以禦冬寒蓋其地比北土甚溫暖故自京成被罪入去而無衣赤脫者亦隨俗耐寒此乃迫不得已也.

기능인으로 젊었을 때는 海女 작업의 수입으로 家計를 꾸려가기도 하였으며 자신이 물소중이를 자주 만들어 입으면서 결점을 보완하여 편리하고 능률적인 물소중이를 제작하였다고 한다.

제작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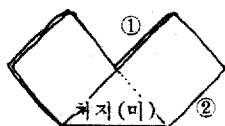
- ① 굴잡기...몸판을 먼저 마련하는 일
- ② 굴바대 붙이기
- ③ 배바대 붙이기
- ④ 허리달기...단을 접지 않았을 때는 자신의 뺨으로 한 뺨하고 가운데 손가락 2/3 정도의 너비로 한다.
- ⑤ 허리바대 붙이기
- ⑥ 바지 옆선과 허리 윗선을 한바퀴 돌려 꿰매기
- ⑦ 굴가랑이 정리
- ⑧ 단추달기...매듭단추(돌마귀 단추)나 끈
- ⑨ 매천(어깨끈)달기...어깨 끈의 너비는 밑바대의 넓이와 같이 하면 좋다. 치수는 가운데 손가락 2마디 정도의 너비가 좋다. 길이는 자신의 주먹을 두 개 포개어 올린 높이 정도의 치수이면 좋다.
- ⑩ 허리끈 달기...뒤쪽의 끈을 짧게 하고 앞쪽 끈을 길게 한다. 끈의 길이는 앞쪽의 끈이 허리를 한바퀴 돌고도 배꼽까지 오게 길게 한다. 끈의 너비는 뒤쪽 끈보다 앞쪽 끈을 넓게 한다.
- ⑪ 등허리바대 대기...물질하는 도중에 빗창<sup>24)</sup>을 쓰지 않을 때는 등허리춤에 간수하게 된다. 등허리의 허리 끈 사이에 찢려 두는데 이때 자주 빗창을 사용하게 되면 등허리춤의 옷감이 상하기 때문에 형겅을 겹으로 붙이고 단단하게 바느질 하는 것이다.

## (2) 만들 때 주의점

### ① 굴잡기

뚱뚱한 사람은 자신의 발로 한발하고 한 뺨 정도로 잡고, 가는 사람은 한 발하고 작은 뺨이 되게 잡는다.

24) 물 속에서 전복이나 기타 해산물을 따는데 쓰이는 쇠로 만든 칼모양의 도구.



〈그림 3〉體形에 따른 굴잡기 한다.

② 미(쳐지) 부분은 엇선이여서 신축성이 있으므로 허리가 굵은 사람은 약간씩 늘이면서 달아야 융통성이 있어 편리하다.

①과 ②는 同치수로 하는게 원칙이지만 배나 허리가 큰 사람은 ①쪽을 더 넓게 잡도록

## 5. 海女服 着用的 실태

〈表 2〉海女服 着用的 현황(在來服과 改良服)<sup>25)</sup>

지역	옷	在 來 服(綿옷)	改 良 服(고무옷)	조 사 일 시
牛 島		19名	58名	1973. 8
加 波 島		20名	없 음	1974. 8
龍 水 里		20名	9名	1973. 12
吾 照 里		6名	17名	1974. 4

위 〈表 2〉에서 보면 1973년 12월 龍水里에서는 在來服 着用 인원이 20명으로 나타났으나, 1977년 12월 조사 때는 海女 전체가 改良服을 着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은 島內 海女들 전체가 改良服인 고무옷을 着用하고 있으나 처음 改良服을 사용할 때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吾照里에서 처음 改良服이 들어 왔을 때 한 두번씩 着用하였던 사람들이 改良服을 입지 말자는 반대 의견들이 많았었지만 1973년부터는 단체로 주문하여 입기 시작하였다.

다음은 在來式 海女服인 綿제품의 물소중이와, 改良式 潛水服인 고무제품 두가지를 사용하여 본 海女들의 증언에 의해 改良 잠수복의 장·단점을 밝힌 것이다.

### (1) 改良服의 長點

潛水 시간이 길고(1회 潛水 6時間 정도), 추위도 덜 느끼며, 잠수시간이 길

25) 濟州大學 國文學報 5 (1973년)·6輯(1974년)과 濟大學報 19輯(1978년)을 참조한 것임.

기 때문에 採取量이 많아 경제성이 높다.

## (2) 改良服의 短點

고무옷이므로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고무냄새가 나고 그 냄새로 인하여 두통과 구토증이 심하며 고무성분과 通氣가 안되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피부병이 생기며, 長時間의 潛水로 과중한 노동력으로 체력소모에서 오는 빈혈 및 두통을 이기지 못하여 진정제로 뇌신을 常用하는 者가 늘고 있으며, 허리에 달아 매는 鉛鐵의 무게 때문에 허리병이 생기고 신체의 強韌性이 없어져서 병에 대한 저항능력이 부족하여 신체를 弱化시키고 있다. 이는 綿織물로 만든 물소중이를 입고 潛水할 때는 물속에서 추워서 오래 작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위를 느끼므로 물밖으로 나와서 불을 쪼면서 쉬기도 하여 신체능력에 맞게 작업을 하였으나, 고무옷(改良 잠수服)이 나오면서는 많이 채취해서 돈을 번다는 욕심 때문에 갖가지 질병을 일으켜 불치병에까지 이르는가 하면 고무옷으로 추위나 외부로부터의 신체를 보호하여 줌으로써 신체의 강인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長・短點 가운데 短點이 더 많고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처음에는 반대하기도 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월등한 소득으로 인하여 개량 고무옷을 입다보니 평생 고질병을 얻어 약을 常服하고 있는 者가 많다한다.

## V 맺 음 말

이상 간단히 정리한 本島 女人们的 속옷에 관한 研究는 1970년 이래 계속 수집・보완된 것이나 古老들을 통한 면담과 口傳을 토대로 조사한 것이므로 앞으로 가능한한 년대와 발생근거 등을 찾아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筆者가 조사를 시작한 1970년대 初만 해도 勞動服인 갈옷이나 在來式 綿제품인 물소중이를 海女들이 입고 있는 현장은 쉽게 목격할 수 있었으며, 當時만 해도 이렇게 갑자기 소멸할 줄을 몰랐었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거이 찾을 길이 없고 1984년 筆者가 우연히 濟州市의 某물동품 가게를 지나갈 때

거기에 걸려 있는 옷들을 보고 놀란 일이 있었다. 낡고 낡아서 걸레로 쓸만한 값어치조차 없는 옷들이 商品化되어 있기 때문이다.

本島 女性들의 속옷들은 (물)소중이를 제외하고는 陸地部 女性들의 속옷류와 비슷하나 굴중이(단속곳)는 속곳과 단속곳의 二重기능을 單一 기능으로 하면서 勞動力이나 생활환경상 日常化되고 있지 않은 것 즉, 속곳과 용도가 변형화한 것 즉 단속곳 등이 있다. 本島에서 굴중이는 서민 여성들에게는 陸地部에서 입는 치마의 받침옷인 단속곳이며 지금의 속치마로 쓰였으나, 本島에서는 內衣로 남아 있으면서도 대부분 儀禮用이나 특수 외출용에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內衣보다는 外衣化한 대표적인 작업복으로 바뀌었으니 감물을 들여 입게된 갈굴중이가 그 예이다.

소중이는 本島 固有의 여성用 속팬티로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기는 兩・賤의 계급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한 1900년대부터 시작하여 현대식 메리야스 제품의 팬티가 보급되기까지이다. 그러나 소중이는 형태상 海女들의 작업복인 물소중이와 같다하여 兩・賤의 구별을 따지는 세대에서는 사용이 되질 않았다 하니 좁은 사회에서도 존비의 계급의식이 얼마나 심하게 나타났는지 알 수가 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海女服인 물소중이는 그 발생년도와 근거를 확실히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으나 倭寇의 약탈과 과중한 세금의무와 박한 風土에서 살아가기 위한 生業수단으로서의 潛水작업을 통해 고안해내고 발전시켜 왔다고 보겠으며, 더우기 제주에서 생산되는 섬유인 배나 무명의 폭을 이용하여 알맞게 마름질하는 방법과 합리적이고 활동적인 옷으로까지 개발시켜 온 점등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民俗은 한 지방의 風俗을 말하며 각기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다. 繪圖나 문자 등의 기록이나 遺物이 있는 과거의 조사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서둘러 조사해야할 필요도 없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맡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의 주위에는 우리들만의 것, 순수한 우리들의 것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한 것이 많다. 外來문물이 마구 들어오던 개화기에 우리는 우리

것은 잡을 수 없고 또 우리 것을 우리 것으로 모른채 他에 의해 말살되고 흡수되어 버리고 변형되어 버린 것이 너무 많다. 빨리 定立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시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他에 의해서 정리되고 고쳐 놓아진 것들을 찾아 바르게 잡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古老들의 경험담이나 선조들의 口傳을 모아 정리해둬야 한다.

앞으로 이런 작업들을 통하여 각 지방이나 家門에서 이어온 服飾形態를 조사·정리하고 相互 비교연구를 통하여 鄉土服飾 즉 순수한 土着庶民들의 服飾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순수한 일반 土着 庶民들의 服飾研究가 바르게 많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 복식의 전통성 및 특수성을 바로 알게 될 것이다.











